

'2020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5.26	대전MBC 대회의실	8	7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김병구 위원, 이규홍 위원, 서한나 위원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3	2	-	2	8	-	8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7	1	-	8

다. 전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 건	7 건	
교양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단조로운 구성의 변화	차회 제작분 시청자 질문 별도 구성 <20.5월 조치>	'20.4월
교양	<독전 2> 청소년 관련 소재로 호응 얻어	제작진 전달 및 향후 계속적 반영 <20.5월 조치>	'20.4월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 진행자의 보다 품위 있는 진행, 주제에 부합하는 영상구성	진행자 의견 반영, 코너 제작시 주제 영상 강조 <20.5월 조치>	'20.4월
교양	<다큐에세이 그사람> 자막제작시 보다 신중한 선택	전체 제작회의시 의견 반영 <20.5월 조치>	'20.4월
보도	<시시각각> 다양한 패널 확보 필요	출연자 풀 확대 및 다양성 강화 제작 <20.5월 조치>	'20.4월
보도	<뉴스데스크> 총선에서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	선거후 선거방송관련 내용 정리, 차기 제작시 참조 및 제작 반영 <20.5월 조치>	'20.4월
기타	<라디오> 홍보강화 시청자 호응 얻어	보다 다양한 라디오 자체 홍보물 제작 <20.5월 조치>	'20.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 명	전 · 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및 회의록 전문공개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신규 임명

-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시청자위원 종료.
권부남 부위원장, 김종남 위원, 양홍모 위원, 양선희 위원 (4명)
-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시청자위원 공개모집, 선발 (5명)
정현주 위원, 안경자 위원, 배장우 위원, 이기동 위원, 조은희 위원

* 신임 위원 경력사항 및 추천서 별도 첨부

다.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김선재	배재대학교 총장	한국콘텐츠학회	문화단체	19.05.01~ 21.04.30
	정현주	여성긴급전화 1336 대전센터장	대전청소년 위캔센터	청소년단체	20.05.01~ 21.04.30
위원	안경자	한국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한국소비자모임	소비자단체	20.05.01~ 21.04.30
위원	배장우	지산종합건설 대표	대한건설협회	경제단체	20.05.01~ 21.04.30
위원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대전충남민주언론 시민연합	언론관련단체	20.05.01~ 21.04.30
위원	조은희	목원대학교 광고언론홍보학부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20.05.01~ 21.04.30
위원	김병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9.05.01~ 21.04.30
위원	박상민	정보철강(주) 부사장	미래경영인모임	경제단체	19.05.01~ 21.04.30
위원	서한나	잡지 Boshu 편집장	청년 고리	문화단체	19.05.01~ 21.04.30
위원	이규홍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	한국독성학회	과학기술단체	19.05.01~ 21.04.30
위원	송은영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	20.02.25~ 21.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1. 편성 :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p> <p>5/20에는 프로파일러 김경옥 박사의 이야기였는데, 범죄 피해자를 만나는 직업인 프로파일러가 출연하여 저의 업무와도 관련이 높아 재미있게 시청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방청은 없었지만, 일반 시민이 궁금해할만한 질문을 첨부하여 더욱 알찬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부분도 청소년들 측면에서 살펴보아 유익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편성 시간대가 조금 보기 편한 시간대였으면 어떨까 하는 점입니다. 혹시, 보다 좋은 시간대로의 이동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현주 위원)</p>	<p>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편성 시간의 경우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사의 편성 정책에 따라 지역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시청시간대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p> <p>향후 개편 회의 등 경로를 통해 더 좋은 시간대 지역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토록 하겠습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2. 교양 : 생방송 아침이 좋다</p> <p>저는 주부의 입장에서 아침 방송을 틀어놓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가 방송되는데, 머물러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퀴즈도 풀어보고, 상품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퀴즈라는 형식자체가 좀 오래되었고, 같은 형식으로 계속 방송되고 있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MBC는 예전의 KBS를 보는 느낌입니다. 시청자의 눈을 끌 수 있는 역동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p> <p>5/15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이벤트는 의미와 함께 음악이 잘 구성된 코너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의료 관련 코너에서는 방송에 익숙치 않은 의사가 출연하여, 그대로 원고를 읽는 진행이 되었는데, 시청자가 보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방송에 비전문가가 출연할 때는 진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좀 더 도움을 주거나, 리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은희 위원)</p> <p>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박종훈 진행자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말씀드렸는데, 많이 개선된 느낌입니다. 보다 나아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맛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방송된 식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소개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빠른 업데이트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재 위원장)</p>	<p><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2005년 <전국시대>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정보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지역MBC가 코너를 교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교환프로그램이지만 로컬성을 강조하기 위해 날씨, 퀴즈 등의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제공 등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3. 교양 : 건강플러스</p> <p>건강플러스에서는 매주 요리는 소개하는데, 관련레시피와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 업로드가 조금은 부진하지 않은가 합니다. 올리는 레시피도 재료에 대한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기술하는데, 주재료와 양념, 부재료 등을 명기하면 보다 좋을듯합니다.</p> <p>이어지는 TV주치의에서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PPT와 구두로만 진행하여, 건조하고 지루한 느낌입니다. (김선재 위원장)</p>	<p>건강플러스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도 감사합니다. 개선이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의견상,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능감 있는 의사가 출연이 가능하면, 보다 제작이 원활한데, 충분한 교육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p> <p>건강밥상 레시피는 홈페이지에 등록해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p>			
교양	<p>4. 보도 : 시시각각</p> <p>5/3 시시각각에서는 진행자의 순발력 있는 진행은 좋았는데, 다만 처음 시작 멘트의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만 더 천천히 처음 시작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배장우 위원)</p> <p>5/17 시시각각에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균형발전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를 방송했는데, 그동안 대전은 균특법의 혜택을 못 받다가 이번에 개정으로 가능하지면서 경제부분에서는 새로운 활력이 예상됩니다. 대전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가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논의도 향후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상민 위원)</p>	<p>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 향후 프로그램 주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p> <p>진행 속도에 대한 부분은 진행자와 논의해서 가장 적합한 속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보도</p>	<p>5. 보도 : 뉴스데스크 - 자막, 용어 사용</p> <p>5/6 뉴스데스크, 해외 입국 재 확진자 20대 여성, 남성에 대한 보도에서 멘트에서는 20대 여성, 자막에서는 20대 남성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준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독립기념관 시민인터뷰 중에서 <많이 완화돼서, 많이 편해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자막으로 사용했는데, 인터뷰 음성을 편집이 불가능하더라도, 자막은 어법에 맞게, 중복되는 단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장우 위원)</p> <p>오늘 대전MBC 뉴스 가운데 「몰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몰카」대신 「불법촬영」이라고 표현했으면 합니다. (정현주 위원)</p>	<p>자막 등의 뉴스문법, 보도스탠스 (방향성), 시청자 인터뷰 자막, 왜곡되게 만드는 자막에 대한 표기문제, 사투리는 항상 교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보다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p> <p>「몰카」라는 단어를 판결문을 인용하다보니, 그대로 방송에 사용하였는데, 최근 용어의 사용 주기가 빨라진 탓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어 사용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p> <p>자막 정리 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용어는 보편적이면서도 불법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쓰도록 주의하겠습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6. 보도 : 뉴스데스크 - 금강 뱃길 / 야생진드기 / CCTV</p> <p>코로나 19관련 연구단지의 성과물 보도는 참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밀접한 연구단지의 모습을 보여줘 우리지역의 이런 기관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하는 우리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였습니다.</p> <p>5/13 보도된 「금강 백리, 뱃길로 잇는다」는 우리 지역의 큰 사업이라는 느낌인데, 서천군 행정과장과 사업단체를 소개하고,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도 없이,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 뱃길에 대한 청사진만을 제시한 보도였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 짧게 처리되고 긍정과 부정의 인터뷰도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후,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p> <p>야생진드기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진드기는 농촌에서 많이 걸리고, 도시의 잔디밭에서 걸릴 수 있는 문제라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보도로 필요합니다. 다만 자료화면에서 살레위의 진드기를 손위에 올리려는 화면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칫 진드기는 위험하지 않다는 진드기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효과를 줄수도 있기에 화면구성시 보다 깊은 속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p> <p>CCTV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당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약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뉴스를 보고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고, 진단서 화면에서도 주민번호 이름 등의 주요 정보는 블러처리가 되었으나, 나머지는 노출되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보다 세심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p>	<p>금강 뱃길에 대한 보도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보도하나 하는 고민과 직결된 아이템입니다. 환경단체의 성명은 스트레이트 기사화하여 같이 전달하였고, 향후의 결론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5개 시군이 협약을 하는 정도의 단계이고 환경 단체의 입장을 쓰기에 이른듯하여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추후 후속보도나 토론을 통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p> <p>코로나19와 관련 대덕의 성과를 조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상을 되찾을 유일한 길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금강백리와 관련해선 해당 리포트 이후 환경단체의 반발과 문제제기 등도 후속 보도했습니다. 추후 환경성과 경제성 등 어떤 쟁점이 있는지 입체적인 취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시 피해자의 보호와 화면 구성 등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p>7. 기타 : 홈페이지</p> <p>대전MBC 홈페이지를 보면 코로나 19 상황판이 있고, 이 섹션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보도들이 추가되는데, 최근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성 섹션은 지속적이고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상민 위원, 정현주 위원)</p> <p>홈페이지 제작된 프로그램 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너무 간결하여, 프로그램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지역사 공동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자체 제작과 같은 정도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기동 위원)</p>	<p>홈페이지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즉시 업로드를 하는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음날 바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공익적인 좋은 캠페인으로 발전시키는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편성)</p> <p>코로나19를 비롯한 뉴스테마별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더 잘 빠른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p>			
기타	<p>8. 기타 : 인권위원회 인용</p> <p>유지은 아나운서 관련 인권위의 인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픈 부분이지만, 인권위의 결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보이후, 시청자에게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가 지역에서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p>	<p>추후 인권위 판결문을 받은 후 판단하겠습니다.</p>		○	